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88/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2학년도 수특 독서 주제통합 04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프랑스의 학자 자크 엘릴은 현대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우선 전통 기술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 활동 등 인간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현대는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엄청난 발전 속도, 지역의 문화와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편성, 여러 기술이 거미줄처럼 엮여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 것 등이 현대 기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엘릴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해 온 인간이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을 자유도,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없게 된 상황을 ㉠ “현대 기술은 이제 자율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때 기술이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거나 기계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 발전이 기술 시스템의 관성에 의해 지속되고, 그 과정에 인간의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기술 사회를 이끌어 가는 거대한 기술 시스템은 인간들에 의해 조정되기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의 관점에 따라 운영되고 발전한다. 인간의 가치나 필요는 효율성의 논리 앞에 무력하다.

엘릴은 현대 기술 사회의 문제로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 기계들을 사용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술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점, 기술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런데 엘릴은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삶이 더 나아지는 과정, 더 인간적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느낀다는 데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술 개발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특정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기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개별 사례들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엘릴에 따르면, 몇몇 기술들이 효율성 추구의 관점을 거슬러 인간의 통제하에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이 자율적이 되는 흐름 속에 곧 묻혀 버리거나 도리어 그 흐름을 돕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나)

기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의지를 가진 살아 있는 주체이고 기술은 자체 생명력이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기술을 바꾸고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하이데거가 간파했듯이 어떤 기술은 인간을 옥죄고 지배한다. 미국의 기술 철학자인 랭던 위너는 이렇게 자체 생명력을 가진 기술을 ‘자율적 기술’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기술 철학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모두 지배와 통제의 관계로 설명해 왔다. 즉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적’ 관점이다.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든가, 기술이 인간을 도구화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이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지배·통제의 관점에서 해석된 이유 중 하나는 서양 철학의 오래된 주체·객체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라는 주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술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연과 세상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었다. 이를 거꾸로 돌렸을 때,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옥죄는 생각이 나왔다.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지배와 통제의 관계를 넘어선 수 많은 복잡한 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

기술을 인간의 목적으로 혹은 인간을 기술의 목적으로 국한하는 관점을 처음으로 탈피한 철학자는 프랑스의 ㉡ 질베르 시몽동이다. 그는 기술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기술의 특성이 ‘집합체’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기술이 집합체라는 말은 기술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은 항상 그것이 수행하는 일, 그것을 만든 이유와 함께 존재한다. 또 이러한 기술은 이동 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기술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확장되고,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새 관계를 만들어 낸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인간과 다른 대상, 즉 주체와 객체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서구 철학의 이분법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학자인 ㉢ 브루노 라투르는 이러한 관점을 더 발전시켰다. 그는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기술이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고 보는 입장을 모두 비판한다. 전자는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이고, 후자는 기술이 인간의 필요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기술 결정론적인 입장으로, 라투르는 이 두 입장의 중간을 취하지 않고 기술을 이해하는 훨씬 더 급진적 시각을 제공한다. 그것은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인간과 같은 행위자(actor)로 보는 것이다. 그는 인간 사회가 기술 없이는 구성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으며,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 기술, 무생물 등과 같은 비인간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는 우리가 현대 기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지배·통제라는 틀에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1.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함. ㉠ ⋮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관점에 대해 설명한 후 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례들을 열거하며 해당 관점이 지닌 한계를 제시함... ㉡ (나)는 (가)와 달리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여 발전하는 양상을 제시함. ㉢ ⋮

- | | | | |
|---|-----|-----|-----|
| | ㉠ | ㉡ | ㉢ |
| ① | 적절 | 적절 | 적절 |
| ② | 적절 | 적절 | 부적절 |
| ③ | 적절 | 부적절 | 적절 |
| ④ | 부적절 | 적절 | 적절 |
| ⑤ | 부적절 | 부적절 | 적절 |

2. ㉡의 입장에서 ㉢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의 개발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인간의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것을 외면하고 있다.
- ③ 기술의 발전이 기술 시스템의 관성에 의해 지속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 ④ 인간의 결정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 ⑤ 인간이 기술로 인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새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3. ㉢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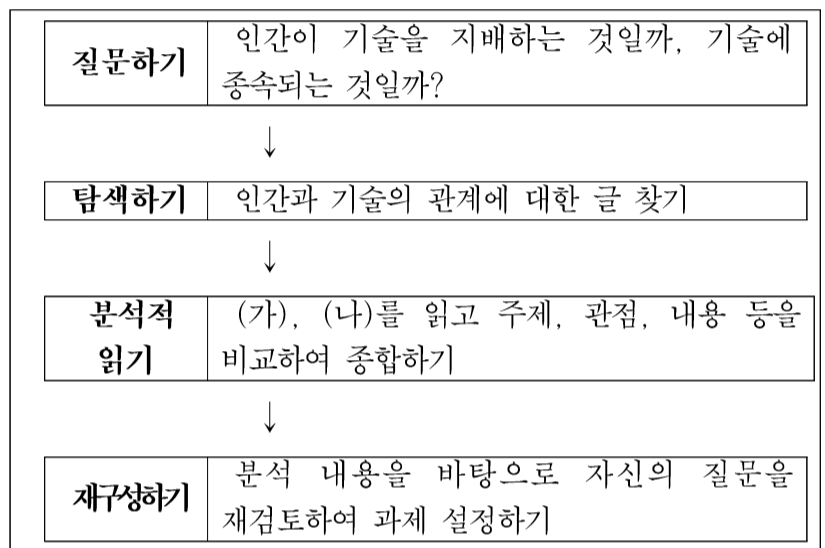
<보 기>

미국에서 ㉠충기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충이 사람을 해친다.”라고 외친다. 충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충기 관련 사건·사고가 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충기 사용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충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의 얘기는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충은 중립적인 도구이고 용도에 따라서 좋은 목적으로도 혹은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충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 ① ㉠는 기술이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군.

- ② ㉡는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구성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군.
- ③ ㉠, ㉡는 모두 충도 인간과 같은 행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군.
- ④ ㉠, ㉡는 모두 기술 없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생각은 못하고 있군.
- ⑤ ㉠, ㉡는 모두 인간이 충과 같은 비인간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

4.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가)는 내가 한 질문과 비슷한 생각의 틀로 접근한 반면에, (나)는 그 틀에서 벗어난 관점도 보여 주었다. 내 생각과 다른 관점도 있음을 고려하여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탐구해 봐야겠다.
- ②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가)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하에 발전하고 있다고 본 반면에, (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나)와 같은 관점도 고려하여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반성적으로 돌아봐야겠다.
- ③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가)는 인간이 기술을 극복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 반면에, (나)는 인간과 기술이 공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견해가 달라 보이지만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나의 질문과 비슷한 생각의 틀로 접근했고 인간과 기술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간이 기술을 창조한 것이니만큼 인간이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나의 질문과 비슷한 생각의 틀로 접근했는데, 인간과 기술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간과 기술 중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셈이니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찾아봐야겠다.